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4. 1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4월 16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 의결안건 제121호~제135호, 보고안건 제12호~제13호 참여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5차 및 제6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6차 및 제7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5차 및 제6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6차 및 제7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20호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21호 『(주)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주)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증선위에서는 수정의결 되었는지?
- (보고자) 위반동기가 원안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중'으로 하였으나, 증선위에서는 '상'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
- (위원) 증선위에서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 보아 위반동기를 상향하였음. 그렇지만 과징금 부과금액에는 차이가 없음. 그래서 금감원 원안과 과징금 부과금액은 동일하게 심의하였음.
- (위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동 위반행위를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위반동기를 '중'에서 '상'으로 변경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감원 원안과 동일한 1억 8,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수정의결함.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22호 『아데나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아데나투자자문(주)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월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3호 『에셋원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셋원자산운용(주)이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투자매매업 폐지
승인을 신청한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4호 『한국자산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엠디엠플러스가 한국자산신탁(주)의 대주주가 되고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5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보험회사에서 예금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좋아 보임.

○ (위원) 은행 같은 경우에 부담이 줄어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 또는 예대마진의 감소를 기대해볼 수 있는지?

○ (보고자) 2018년 기준으로 예금보험료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산정해 보니 은행은 전체적으로 50억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음. 다만, 보험사는 생·손보 합쳐서 3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조금 여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6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건전성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보험사의 금리변동위험 등 시장위험을 재보험사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보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외국계 재보험사의 경우에는 국내 원보험사보다 자산운용능력이나 리스크풀링(risk-pooling) 차원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 보험상품을 해외 재보험사에 이전할 경우 시가평가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위원) 국내 보험사에게 불리한 측면은 없는지?
- (보고자) 만약 시장금리가 상승한다거나 재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 원보험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위원) 재보험사는 공동재보험계약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 (보고자) 그러함. 재보험사는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보험사와 재보험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는데 재보험사는 본인의 자산운용능력이나 향후 시장금리 변동에 대한 예측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게 됨. 원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가격협상 후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원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재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임.

- (위원) 도입시기가 앞당겨졌더라면 공동재보험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금리 수준에서 공동재보험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있는지?
- (보고자) 일부 보험사가 재보험사와 공동재보험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금리 수준이 높으면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액이 낮아지므로 원보험사가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 때문에 언론에서 도입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아시아지역 생명보험사의 금리리스크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업계와 이 제도의 활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음.
- (보고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겠음.
- (위원) 비례식 공동재보험으로 한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특정 상품의 보험료를 10%만큼 출재하는데 보험위험은 7%가 넘어가고 금리위험은 13%가 넘어간다면 비례식이 아님. 비례식이라는 것은 보험료가 10% 넘어갈 때 보험위험이라든지 다른 위험들도 다 10%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함. 공동재보험의 위험전가효과를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험이 정확하게 그 비율만큼 넘어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비례식이 아닌 경우 위험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크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움. 향후 관련 제도가 더 활성화 된다면 허용 범위를 확장하여 검토할 예정임

○ (위원) 도입초기 비례식으로 일단 시작해 본다는 취지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 제한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 (위원) 시행령 안에 최고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다는 것
인지?

○ (보고자) 그러함. 당초에는 시행령 제7조의2에 제2항을 신설
해서 재난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
정을 하고자 했는데,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
서 현재 있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한도를 50만 원으로 하
고 단서를 두어서 단서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경우
에는 300만 원 한도로 정하도록 했음.

- (위원) 금융위와 협의하는 과정은 필요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기명식 선불카드도 현재 500만 원 한도가 있고 따로 협의 절차는 없음.
- (위원) 무기명 선불카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개입해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 (보고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 수급자가 직접 선불카드 발급 은행에 찾아가거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신청·확인해서 발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임.
- (위원) 발급을 받은 다음에 제3자에게 이전·양도가능성은 있지 않은지?
- (보고자) 그 부분도 경기도는 상정하고 있었는데 양도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었음. 왜냐하면 이 선불카드의 이용처가 제한되어 있는데 양도를 하더라도 어쨌든 수급자 지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비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기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8호 『(경기)안국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경기)안국저축은행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및 부동산 개발 등 미인가 업무 영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와 임직원 신분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9호 『(서울)대신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30호 『(경기)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31호 『(충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울)대신저축은행 등이 잘못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2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설명함

※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3호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이 설명함

※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4호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설명함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5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이 설명함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익명신청 및 선제적 제시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

- (위원) 비조치의견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위원) 비조치의견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금감원이 발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면책 개정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바꾸었음. 과거에 하던 방식과는 조금 바뀔 것으로 생각함.
- (위원) 금감원과 금융위가 잘 협의해서 비조치의견서도 제때 보내주었으면 좋겠음. 상당히 과감하게 했는데 엄청난 자료에 비해서 홍보라든지 우리의 노력이 별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 혜택이 기업들에게 마지막까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음.
- (위원) 신청이 없더라도 비조치의견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 (위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2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

- (위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증권사가 9월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 및 대출채권에 대해 위험액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는지?
- (보고자) 만기도래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취득(차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위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방안이므로 상황이 종료되면 원래 규제취지에 맞게 원상회복 시키고 원상회복전에 금융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시행시점과 종료시점에 각 업권별 금융회사들과 소통을 잘해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3호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8분 폐회)